‘7월 전승팀’ … 코로나가 만든 KIA의 기적?

프로야구 멈춤으로 7월 6승 ‘100% 승률’ 웃지못할 기록 비상 상황서도 원칙대로 최선 팬들과의 약속 지켰다

KIA 타이거즈의 뜨거웠던 7월이 코로나19로 아쉽게 6연승으로 마무리됐다. 7월 6경기에서 타율 0.409(22타수 9안타), 2홈런 7타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던 김호령의 타격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호랑이 군단’이 7월 전승팀이라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라운드가 코로나19로 멈췄다. 두산·NC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에 따라 경기 일정에 파행이 빚어지자 KBO는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10개 구단 사장단은 이날 3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고, 야구팬들의 바람과 달리 또 매뉴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휴식기(7월 19일~8월 9일)에 앞서 예정됐던 6연전 일정이 취소됐다. 그리고 7월 일정이 갑자기 종료되면서 KIA는 ‘7월 전승’팀으로 남게 됐다.

KIA는 7월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승률 100%를 찍었다.

1일 ‘에이스’ 브룩스와 ‘4번 타자’ 최형우가 부상에서 복귀해 5연패를 끊어냈다. 이후 KIA는 비와 코로나 19 취소로 들쑥날쑥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6연승을 이었다.

특히 6연승이 기록된 11일 마지막 경기에서는 두 산발 코로나 여파로 경기 직전 엔트리가 바뀌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의리과 권혁경이라는 ‘고졸 루키 배터리’의 배짱 플레이, ‘베테랑’ 최형우의 결승 투런으로 극적인 2-0 승리도 만들었다.

6승 17패, 0.216이라는 처참한 승률을 찍었던 6월과 달리 부상선수들의 복귀와 함께 상승세를 탔던 만큼 KIA에는 두고두고 아쉬울 7월이 됐다.

KIA는 비라는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7월 3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그리고 8일과 10일에는 ‘코로나19’에 발이 묶였다.

8일에는 앞서 잠실 원정을 다녀왔던 한화 원정 숙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화 선수단이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한화 선수단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린 KIA는 9일 KT를 상대로 5연승을 이었다.

기분 좋게 10일 경기를 준비했던 KIA는 훈련을 다 마친 뒤 급히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주말시리즈에서 만났던 두산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KIA 선수단도 검사 대상이 된 것이다.

가슴 졸이며 하룻밤을 보낸 KIA는 전원 음성 판정에 11일 다시 경기장에 모여 경기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 시작 직전 두산발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면서 휴식날을 보내던 이정훈이 급히 경기장으로 달려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간이 촉박해 결국 이날 고졸 신인 포수 권혁경이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던 1루수 류지혁이 뒤늦게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브룩스의 가세로 마운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타선도 홈런포까지 장착하는 등 매서워졌던 만큼 KIA에는 상승세를 잇지 못한 게 아쉽다.

또 복귀전을 준비했던 멩덴도 끝내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등 순리대로 시즌을 풀어갔던 KIA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밀접접촉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수단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KIA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3일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채 오후 늦게 야간 훈련을 진행했다.

브룩스·멩덴을 앞세워 막판 스퍼트를 준비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퓨처스리그 경기까지 취소된 만큼 훈련·자체 경기 스케줄을 짜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아쉬운 7월이 됐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면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KIA는 성적과 페어플레이에서 모두 MVP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멈춰버린 프로야구 팬들의 비난 뜨겁다

KBO가 무너뜨린 공정 … KIA 등 원칙 지킨 팀들만 ‘바보’

KBO 리그 중단을 놓고 팬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지난 12일 KBO 긴급이사회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두산과 NC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촉발된 ‘리그 중단’ 논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결국 ‘중단’으로 결정됐다.

KBO는 코로나19라는 최악의 돌발 변수에도 지난해 144경기 일정을 완주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올 시즌에도 KBO는 144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확진자가 나오면 대체 선수로 시즌을 이어간다’는 규정을 만들며 큰소리를 쳤지만 스스로 이 원칙을 뒤집으면서 지난 시즌에도 없던 리그 중단 사태를 만들었다. 덕분에 내부의 여러 악조건에도, 외부 요인 탓에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도 원칙대로 그라운드에 올랐던 팀들만 ‘바보’가 된 불공정한 그라운드가 됐다.

규정대로 충분히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올림픽 휴식기 이후 코로나 상황도 장담할 수가 없다. 한 번 뒤집은 원칙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괜한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만들며 144경기 일정을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원칙과 공정을 깨고 진행된 리그의 승리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두산과 NC도 할 말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두 팀의 확진자 발생으로 리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상대 선수단도 피해를 입었다.

KIA는 휴식날을 보내던 선수까지 급히 투입하면서 경기를 풀어갔지만, 이 두 팀은 그라운드를 이탈해 침묵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단 결정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기도, 내용도 틀렸다.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프로야구 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또한 이로 인해 KBO리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두산은 “지금까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의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했지만 실제 두산 내부에서는 안일함을 보였다. 핑계이자 거짓말이 된 셈이다.

NC는 “저희 선수단 내 확진자가 나와 KBO리그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모든 야구팬, KBO회원사, 파트너사, 각 팀 선수단, 리그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구단 선수단과 프런트 모두 한층 강화된 방역 기준에 맞춰 엄정히 대응하겠다.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리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구단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나마 두산과 달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구단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대응 매뉴얼을 뒤집고 리그 중단 사태를 야기한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태를 수습할지는 미지수다.

팬들과의 약속을 깨고 리그를 중단한 KBO의 아마추어 같은 행보는 혀를 차게 한다.

KBO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사태의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19일 예정된 정지택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등 방역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수도권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8일 간담회를 예고했고, 4단계 조정안은 12일 이전에 발표됐었다. ‘두산맨’으로 처음부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됐던 정지택 총재는 할 말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거리두기를 이유로 갑자기 자리를 연기했다.

코로나 심각성을 언급하며 리그 일정은 취소시켰지만 이벤트 경기인 올스타전은 아직 취소 이야기가 없다. 전국 10개 팀 선수들이,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역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위험한 이벤트가 있을까?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번 올스타전 양 팀 사령탑은 NC 이동욱 감독과 두산 김태형 감독이다.

뭣이 중한 줄 모르는 KBO의 인식에 그라운드는 멈췄지만 팬들은 원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축구 K리그도 코로나19 비상

성남·대구 선수단 2명 확진 리그 확진자 11명으로 늘어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 K리그에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에 따르면 13일 성남FC와 대구FC 선수단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7월 확진 판정을 받은 리그 구성원이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가장 피해가 큰 구단은 9명의 확진자가 나온 성남이다.

성남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강원 고성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성남으로 돌아온 뒤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지금까지 스태프 6명과 선수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수 확진자 중 2명은 1군 전력으로 분류된다.

성남 구단은 전지훈련에 참여한 선수와 코치 46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이날까지 모두 확인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작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대구에서도 이날 확진자가 1명 나왔다.

확진자는 ACL 경기에 나선 주전급 선수다. 이 선수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치료센터에 입소했다.

ACL 원정에 나섰던 나머지 36명의 선수, 스태프는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나온 성남과 대구, 제주는 선수단 전부나 상당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프로연맹은 이미 오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FC서울과 제주의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프로연맹은 성남과 대구도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일부 경기를 연기할 계획이다.

20일 인천 유나이티드-성남, 21일 울산 현대-대구, 24일 성남-대구 경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구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K리그 중단 가능성을 거론한다.

프로연맹은 K리그 중단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연맹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진자가 나온 3개 구단의 경기만 연기하고 해당 경기는 차후 예비일 등에 편성해 리그를 정상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유로 2020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에 실패한 잉글랜드의 래시퍼드가 얼굴을 감싸안고 침통해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가 누구인지…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

인종차별 피해 잉글랜드 래시퍼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결승전 승부차기 실축으로 인종차별 피해를 본 마커스 래시퍼드(24·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팬들의 도를 넘은 행위에 꿋꿋하게 맞섰다. 래시퍼드는 13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라면 온종일 들을 수 있다. 페널티킥을 잘 차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20 결승에서 이탈리아와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승부차기에서 3번째 키커인 래시퍼드가 실축한 뒤 4번째 키커 제이든 산초의 슛은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고, 마지막 키커 부카요 사카의 슈팅마저 막혀 승부가 갈렸다. 이후 래시퍼드와 산초, 사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종차별의 타깃이 됐다. 경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축구 팬들이 이들 세 명이 모두 흑인이라는 점을 놓고 차별적인 발언과 욕설 등을 쏟아냈다.

그러자 래시퍼드는 “팀원들을, 모두를 실망하게 한 기분이다.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히면서도 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수만 관중들 사이에서 가족이 나를 응원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순간은 없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이들에게는 모두 고맙다. 나와 우리 팀은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